

2009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족’영역의 핵심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손유림* · 백경임*¹⁾ · 주수언*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Parents' capability about the core contents of 'Family' unit of the 2009 revised middle-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

Son, Yu-Lim* · Baik, Kyung-Im*¹⁾ · Ju, Su-Eu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ssential contents in the 'Family' unit of the 2009 revised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 and look into the capability of parents with respect to such essential cont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followings: First, the essential content deemed to be the most important in the 'Family' unit of Home Economics textbook was found to be the communication, followed by the conflict and gender equality. Second, the communication capability of parents were found to have the most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education level. In the social skill or linguistic skill, mothers were found to have greater capability than fathers were. Third, in relation to the integrating strategies with respect to the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of parents, fathers used the integrating strategies more frequently than mothers. The partition strategies were found to be used more often among the mothers, while the avoiding strategies were found to be used more frequently among the fathers. Fourth, the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was higher among the mothers, compared to the fathers, and was higher among the parents who had daughters rather than sons.

Key words: 가정과(Home Economics), 교과서(Textbook), 의사소통(Communication),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양성평등(Gender Equality)

1) 교신저자: Baik, Kyung-I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123 Dongdaero, Gyeongju, Republic of Korea
Tel: 054-770-2266, Fax: 054-770-2527, E-mail: pgy@dongguk.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가족구성원들의 가족가치관에 도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가족가치관의 혼재 속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족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에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가정과 학교, 사회의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면서 가정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듯이, 청소년들이 체득하는 가치관은 가정에서 부모와 경험하는 일상에서 흡수되어 언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가족가치관은 초기 사회화 과정을 통한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가족과 가족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올바른 가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배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다 근원적으로 배우게 되고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그 가치관을 보완하고 수정하며 가치관을 내면화시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기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의 가치관 및 역량을 파악하고,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교육의 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이다.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가족가치관 교육은 형식적·공적 영역에서 현재 중학교의 기술·가정 교과와 ‘가족의 이해’ 단원에서 유일하게 ‘가족’ 그 자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가족의 이해’를 ‘가족’영역으로 사용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교육과학 기술부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해 이 영역의 교육은 학습자가 가정생활을 통하여 접하는 다양한 현상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경험을 통하여 당면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게 함으로써 자립적인 삶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고, 현대 사회에서 가정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인간애와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는 교육 내용을 다루어 학습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인성교육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교육과학기술부 별책 10, 기술·가

정 교육과정 해설서)고 밝히고 있다.

가족과 관련한 내용은 기술·가정 교과서의 중요한 학습내용이므로 지금까지 가족과 연계해 분석한 연구는 적지 않으나(Kim, 2000; Choe, 2002; Jeon, 2004; 2005; Jeong, 2004; Yoon, 2004; 2006; Yoon et al., 2005; Kim, 2007; Ko et al., 2007; Kim et al., 2008; Son, 2009; Kim, 2010; Lee et al., 2010; Lee et al., 2010; Kim et al., 2011; Jeon, 2012a 재인용) ‘가족’영역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생활 영역분석”(Choi, 2002)과 2007 개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에 관한 연구”(Jeon, 2012) 등 소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2009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족’영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단원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특히 학부모의 역할을 보고자 한 이유는 미래가족을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현재 가족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하는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교육의 교과서와 연계하여 ‘가족’영역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분석을 통해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실상을 파악코자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학교에서 교재로 삼고 있는 2009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핵심 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역량을 파악하는데 있다.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교과는 그 학습 내용을 청소년이 일상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에 접목하여 사고하는 것이 실질적 학습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방법(Jeon, 2012b)이므로, ‘가족’영역의 핵심 내용이 가정 내에서 일상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교육의 기초선(base-line)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일이며,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얻은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과 생활세계가 동떨어진 것이 되지 않도록(Jeon, 2012c) 가정환경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차기교육과정을 위한 교육내용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09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족'영역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 핵심 내용에 대하여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역량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2009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족' 영역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핵심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은 어떠한가?
- 2-1. 학부모 역량의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 2-2. 학부모의 의사소통능력은 어떠한가?
 - 2-3. 학부모의 갈등관리전략은 어떠한가?
 - 2-4.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 가족 분야를 중심으로

2000년 이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수시 개정체제로 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과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화하였다.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으로 중학교 1~3학년 군에 해당하는 기술·가정과는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에 근거한 실천적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교과로서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학습자가 가정생활을 통하여 접하는 다양한 현상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경험을 통하여 당면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게 함으로써 자립적인 삶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해설서)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가정생활' 영역의 목표를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능력을 함양하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개인 및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르는 데에 있다고 명시하였다.

2007 개정 이후 기술·가정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변화는 교육과정에 실천적 문제 중심의 교육과정이 더해진 것이다(Jeon, 2012d). 개념 중심 교육과정이 학습의 내용과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의 학습경험을 중시한다면,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은 인지적·정서적·기술적인 면의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슨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강조한다(Chae et al., 2011). 이러한 강조점을 바탕으로 '가정생활'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더불어 가정생활을 통하여 접하는 부모와의 경험이 중요하며, 이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삶의 태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가진 양육태도의 바탕이 되는 부모의 역량을 파악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혹은 무엇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은 두 당사자, 즉 메시지 전달자와 수신자가 몸 전체를 하나의 세트로 하여 생각과 느낌을 상호 교류하며 협동하여 서로에게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는 정의(Kim, 2008a)를 의미한다.

의사소통은 정지된 하나의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진행되며 나와 상대방이 상호 연결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Kim, 2008b).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능력을 길러야 하며 의사소통의 내용과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공통된 합의점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고 타인을 비롯한 유기체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자 조건이라는 점 등에서 일반적 의미의 의사소통능력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적합한 의사소통 패턴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자 그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하여 유연성 있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Kim, 2008c).

자녀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대인 관계의 다양한 역할을 기를 수 있으며, 또한 부모와 맺는 의사소통의 질에 따라 부모-자녀관계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청소년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Cho & Lea, 2011)를 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족이 청소년 행동문제 야기의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3. 갈등관리전략

갈등은 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에서나 상대방의 행동이 기대에 맞지 않을 때 생길 수 있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오해하는데서 생길 수도 있다(Na, 2006). 갈등에 대해 여러 학자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갈등이란 반목과 적대적 행위를 보이는 개인, 집단, 조직 사이에 발생하는 개인 간, 집단 간, 조직 간의 반목, 대립, 적대행위로 곤란을 겪는 상황(Kim, 2008d)”이라는 정의를 의미한다.

갈등의 상황에서 개인은 갈등의 강도를 조절하여 갈등을 제거하고 해결하거나 갈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조직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갈등관리전략은 특수한 갈등상황에서 선택하는 의사소통방법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Cupach & Canary(1997)의 3가지 갈등전략(통합, 분할, 회피)이 개인 간 갈등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전략(integrating)은 갈등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이 전략은 갈등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분할전략(partition)은 다른 사람의 욕구나 관심을 무시하거나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쟁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상대방보다 자신의 욕구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셋째, 회피전략(avoiding)은 당면한 갈등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갈등 자체를 부정하고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며 애매한 진술을 하거나 농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요구를 묵살해 버린다.

대인적 갈등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갈등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정적인 언급을 사용하는 회피전략이나,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려고 하는 분할전략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통합전략이 필요하다(Jang, 2003a).

4. 양성평등의식

양성평등의식이란 모든 측면에 있어 성별을 근거로 고정관념이나 성역할에 차별적 태도를 갖지 않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권한과 의무를 공정히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의식교육 교재, 2011).

양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야 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양성평등교육이 필연적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모 대상의 체계적인 양성평등교육은 부재한(서울시 교육청, 2006)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부모 스스로 양성평등한 역할 모델을 수행하여 모범을 보이는 것은 자녀의 양성평등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양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양성평등 부모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족’영역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으로 파악된, 의사소통능력, 갈등관리전략, 양성평등의식에 대하여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역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25명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가 .82 이상으로 나타나 도구의 신뢰성이 인정되어 본조사용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12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EZ 서베이를 통해, 조사용 설문지를 서베이용 웹으로 전환하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대상자 중,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으며,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순된 응답을 하거나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지되게 하였고, 성실한 답변을 한 31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기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족’영역에서 다루는 핵심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기법이 사용되었다.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기법은 메타데이터에서 얻어진 단어들을 분석하고 빈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빈도가 높고 핵심어일수록 큰 글씨로 중심부에 표현되어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분석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범주에 맞춘 기술·가정 교과서 총11종을 대상으로 “가족의 이해” 단원의 내용요소를 단어 단위로 입력 후 워드 클라우드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2) 설문지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선행연구인 Kim(2008)의 연구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측정도구는 한국여성개발원(199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설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조사하기 위한 7문항과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40문항, 갈등관리전략 조사를 위한 35문항, 의사소통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4가지 영역, 1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는 <Table 1>과 같이 양성평등의식 .88, 갈등관리전략 .83, 의사소통능력 .88이었다.

설문지에 포함된 측정도구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의사소통능력

평소 자신의 대화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한 능력으로써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Heo(2003)가 개발한 척도를 참고하여 Kim(2008)이 하부 능력을 3가지 관점으로 묶어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3가지 관점의 의사소통능력은 관계적 능력, 대인적 능력, 언어적 능력의 3개 하위 차원이며, 각 차원별로 5개의 하위 영역을 두고 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관계적 능력은 자기노출, 감정이입, 지지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를 포함하고, 대인적 능력은 목표 간파, 주장력, 효율성, 사회적 긴장완화, 잡음통제력을 말하며, 언어적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Scale	Cronbach's α	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0.876	40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0.828	30
Communication Skills	0.883	45
All Scale	0.840	115

능력은 표현력, 조리성, 반응력, 즉시성, 사회적 적절성이 해당된다. 채점은 Likert 4단계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학부모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역문항은 반대로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다고 해석된다.

나. 갈등관리전략

갈등관리전략 설문지는 Jang(2003)의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을 수정하여 Kim(2008)의 논문에서 사용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전략(9개 문항), 분할전략(12개 문항), 회피전략(9개 문항)에 대해 Likert 4단계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학부모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전략에 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 갈등관리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양성평등의식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 조사 설문은 한국어성개발원에서 1999년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를 근거로 하였다.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양성평등의식 측정은 다시 가정생활영역, 교육생활영역, 직업생활영역, 사회문화생활영역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하위 영역 중, 가정생활영역과 사회생활영역의 설문지만으로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을 알아보았다. 가정생활영역은 가정생활의 평등성에 대한 태도로써, 가정 내 사회화의 문제, 가정 내 남녀의 역할과 행동기준, 부부간/부모-자녀간의 권한과 관계의 성격에 대한 규정, 가족 내 성차별, 가족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문화생활 영역은 가정이나 직업 영역 밖에서의 일반적인 대인관계, 성문화, 여성운동, 직업활동을 제외한 사회활동, 미디어에서의 평등성에 대한 태도 등을 말하며,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남녀의 능력과 속성, 역할과 행동기준, 권한과 권력관계, 그리고 성차별과 남녀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은 Likert 4단계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 학부모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역문항은 반대로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양성평등의식이 높다.

3.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3년 12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EZ 서베이를 통해, 조사용 설문지를 서베이용 웹으로 전환하여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으며, 성실한 답변을 한 31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SPSS/PC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2009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족’영역의 핵심 내용

2009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족’영역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범주에 맞춘 교과서 총11종의 내용 요소를 단어 단위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가족”, “가족구성원”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의사소통이 209개, 갈등이 179개, 양성평등이 168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 가치관 형성 및 가족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핵심 내용은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양성평등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Figure 1 참고).

2. 핵심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역할은 어떠한가?

2009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가족’ 영역의 핵심

Table 2. Core contents

	Concept	N		Concept	N
	가족	261	15	건강	75
	가족구성원	257	16	건강가정	75
1	의사소통	209	17	유지	75
2	갈등	179	18	영향	67
3	양성평등	168	19	가족생활주기	66
4	이해	112	20	배려	66
5	기능	96	21	성장	66
6	부모	92	22	수행	66
7	부부	90	23	의미	63
8	해결	89	24	가족생활	57
9	형성	88	25	감정	57
10	가족가치관	85	26	노력	55
11	가치관	81	27	가정	54
12	결혼	79	28	존중	54
13	관계	78	29	노인	54
14	개인	77	30	방법	49



Figure 1. Core contents(Word Cloud)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갈등, 양성평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역량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의사소통능력, 갈등관리전략, 양성평등의식으로 역량화하여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 314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 참가 학부모 중, 아버지가 158명(50.3%), 어머니가 156명(49.7%)이었으며, 연령은 40대가 284명(90.4%)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2명이

Table 3.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14

Variables	Category	N(%)
Gender	Male	158(50.3)
	Female	156(49.7)
Age	30's	24(7.6)
	40's	284(90.4)
	50's and more	6(1.9)
Number of Children	1	47(15.0)
	2	222(70.7)
	3 and more	45(14.4)
Gender of Children	Girl	137(43.6)
	Boy	155(49.4)
	Girl and Boy	22(7)
Grade of Children	1	140(44.6)
	2	105(33.4)
	3	108(34.4)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under	66(21.1)
	College graduate	52(16.6)
	University graduate	164(52.2)
	Graduate school or over	32(10.2)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14(4.5)
	2~4 million	88(28.0)
	4~6 million	135(43.0)
	More than 6 million	77(24.5)

222명(70.7%)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1명이 47명(15.0%), 자녀 3명 이상이 45명(14.4%)의 순이다. 자녀의 성별은 아들이 155명(49.4%), 딸이 137명(43.6%)이었으며, 자녀의 학년은 1, 2, 3학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학부모의 학력은 대졸인 경우가 164명(5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하 66명(21.1%), 전문대학 졸업 52명(16.6%), 대학원이상 32명(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4백만원~6백만원이 135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2백만원~4백만원은 88명(28.0%), 6백만원 이상은 77명(24.5%), 2백만원 이하가 14명(4.5%)의 순이었다.

1) 학부모 역량의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부모의 의사소통능력은 관계적 능력(2.87)과 언어적 능력(2.71)은 평균값인 2.5 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역량이 양호한 편이나, 대인적 능력(2.38)은 미흡하다고 하겠다.

갈등관리전략은 분할전략(2.3)이 평균값보다 낮고, 회피전략(2.61)과 통합전략(2.82)은 평균값보다 높았다. 자신을 주장하는 분할전략이 낮은 수치인 것과 가장 성숙한 통합전략 수치가 높은 것은 바람직하게 보이나, 상황을 회피하는 회피전략이 평균값 이상인 점은 주목하여야 할 점으로 “부모의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자녀의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연구(Beom

& Kim, 20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갈등상황에서 통합전략은 물론 회피전략 또한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양성평등의식은 가정생활영역(2.94)은 평균값보다 높고 사회생활영역은 평균수준 이었다.

2) 학부모의 의사소통능력은 어떠한가?

학부모의 역량 중 첫 번째 영역은 의사소통 부분으로, 평소 자신의 대화에 대해서 자신이 평가한 의사소통능력을 자기노출, 감정이입, 지지력, 집중력, 상호작용 관리를 포함한 관계적 능력과 목표 간파, 주장력, 효율성, 사회적 긴장완화, 잡음통제력을 포함한 대인적 능력, 표현력, 조리성, 반응력, 즉시성, 사회적적절성을 포함한 언어적 능력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학부모의 의사소통능력은 어머니가 대인적 능력과 언어적 능력에서 아버지보다 유의미(p<.05)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Kim, 2008)에서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언어적 능력이 높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연구 결과이다.

학력변인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세 하위영역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계적 능력과 대인적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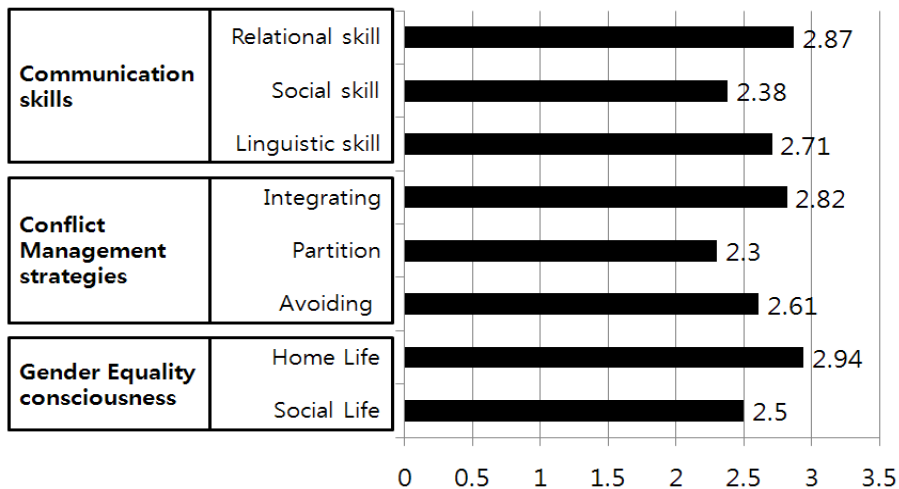


Figure 2. General level of parents

Table 4. Communication skills

		Variables	N	M	Duncan	F
Relational skill	Gender	Male	158	2.94		.311
		Female	156	2.74		
	Age	30's	24	2.85		.136
		40's	284	2.84		
		50's and more	6	2.92		
	Number of children	1	47	2.79	b	.528*
		2	222	2.87	a	
		3	45	2.95	a	
	Gender of children	Girl	137	2.88		.290
		Boy	155	2.87		
		Girl and Boy	22	2.86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under	66	2.66	b	.270*
		College graduate	52	2.83	b	
		University graduate	164	2.89	a	
		Graduate school or over	32	2.98	a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14	2.79		.233
2~4 million		88	2.89			
4~6 million		135	2.73			
More than 6million		77	2.95			
Social skill	Gender	Male	158	2.31		1.764*
		Female	156	2.45		
	Age	30's	24	2.21		.265
		40's	284	2.27		
		50's and more	6	2.66		
	Number of children	1	47	2.28		.119
		2	222	2.34		
		3	45	2.52		
	Gender of children	Girl	137	2.37		.320
		Boy	155	2.24		
		Girl and Boy	22	2.53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under	66	2.32	a	5.267*
		College graduate	52	2.35	a	
		University graduate	164	2.37	a	
		Graduate school or over	32	2.48	a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14	2.14		.188
2~4 million		88	2.31			
4~6 million		135	2.41			
More than 6million		77	2.66			

	Variables	N	M	Duncan	F	
Linguistic skill	Gender	Male	158	2.62		1.927*
		Female	156	2.80		
	Age	30's	24	2.84		.211
		40's	284	2.81		
		50's and more	6	2.80		
	Number of children	1	47	2.84	a	.524*
		2	222	2.67	b	
		3	45	2.94	a	
	Gender of children	Girl	137	2.88	a	.174*
		Boy	155	2.75	b	
		Girl and Boy	22	2.82	a b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under	66	2.51	a	4.764***
		College graduate	52	2.59	a	
		University graduate	164	2.84	a b	
		Graduate school or over	32	2.90	b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14	2.76	b	2.974*
2~4 million		88	2.77	a b		
4~6 million		135	2.81	a		
More than 6million		77	2.92	a		

*p<.05, **p<.01, ***p<.001

력에서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언어적 능력에서 가장 유의미(p<.001)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대졸과 대학원졸업 집단과 고졸 또는 고졸이하와 전문대 졸업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성별은 의사소통능력 가운데 관계적 능력과 대인적 능력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언어적 능력에서는 유의미(p<.05)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딸의 경우가 아들의 경우보다 학부모의 언어적 능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일 때 관계적 능력과 언어적 능력이 유의미(p<.05)하게 높았는데 이는 다수의 자녀를 두었을 때 관계적 능력과 언어적 능력이 요구되어 개발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언어적 능력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p<.05)가 있었는데, 사후 검증 결과 자녀가 2명인 집단보다 1명이나 3명이상을 둔 집단이 능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2명인 경우 보다 1명인 경우에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녀가 둘인 경우에 상대적

으로 부모의 의사소통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녀들의 2인 관계에 부모가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더 깊이 있는 후속 연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의 연령은 의사소통능력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학부모의 관계적 능력은 자녀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역량이 크며, 대인적 능력은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가, 또 학력이 높을수록 역량이 크게 나타났다. 언어적 능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역량이 있으며,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일 때, 자녀가 딸일 경우에, 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크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유의미하게 언어적 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부모의 갈등관리전략은 어떠한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관리전략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통합전략과 회피전략을 유의미(p<.01)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분할전략을 유의미

Table 5.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Variables	N	M	Duncan	F	
Integrating	Gender	Male	158	2.87		2.122**
		Female	156	2.78		
	Age	30's	24	2.82		.330
		40's	284	2.71		
		50's and more	6	2.92		
	Number of children	1	47	2.74		1.433
		2	222	2.82		
		3	45	2.89		
	Gender of children	Girl	137	2.69	a	1.306
		Boy	155	2.83	a b	
		Girl and Boy	22	2.93	b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under	66	2.77	a	3.312**
		College graduate	52	2.76	a	
		University graduate	164	2.86	b	
		Graduate school or over	32	2.91	b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14	2.73	a	4.131*
2~4 million		88	2.79	a		
4~6 million		135	2.85	a b		
More than 6million		77	2.89	b		
Partition	Gender	Male	158	2.24		-3.200**
		Female	156	2.36		
	Age	30's	24	2.18	b	3.838**
		40's	284	2.19	b	
		50's and more	6	2.53	a	
	Number of children	1	47	2.26		2.245
		2	222	2.31		
		3	45	2.35		
	Gender of children	Girl	137	2.29	a	2.462*
		Boy	155	2.42	b	
		Girl and Boy	22	2.21	a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under	66	2.31		.730
		College graduate	52	2.37		
		University graduate	164	2.30		
		Graduate school or over	32	2.22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14	2.22		.589
2~4 million		88	2.32			
4~6 million		135	2.25			
More than 6million		77	2.41			

	Variables	N	M	Duncan	F	
Avoiding	Gender	Male	158	2.99		.289**
		Female	156	2.24		
	Age	30's	24	2.47	a	4.642**
		40's	284	2.49	a	
		50's and more	6	2.89	b	
	Number of children	1	47	2.81	a	.0307*
		2	222	2.47	b	
		3	45	2.34	b	
	Gender of children	Girl	137	2.65	b	.869*
		Boy	155	2.77	a	
		Girl and Boy	22	2.51	b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under	66	2.78		.591
		College graduate	52	2.49		
		University graduate	164	2.65		
		Graduate school or over	32	2.54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14	2.77	b	.199*
		2~4 million	88	2.43	a	
		4~6 million	135	2.55	a	
		More than 6million	77	2.71	b	

*p<.05, **p<.01

(p<.01)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변인에서는 분할전략과 회피전략에서 유의미(p<.01)하였는데 사후검증 결과30, 40대 집단에 비해 50대 이상 집단이 분할전략과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나이든 부모가 갈등 상황에서 상호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역량의 부족으로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거나 회피할 수밖에 없는 역량부족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자녀수 변인에서도 회피전략에서 유의미(p<.05) 하였는데 사후검증에서 1명의 자를 둔 경우에 다수의 자녀를 둔 집단보다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성별 변인에서 통합전략은 성별 차이가 없었고, 분할전략과 회피전략은 유의미(p<.05)하게 구분되었는데 딸에 비해 아들의 경우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력수준은 분할전략과 회피전략과는 상관이 없었고 통합전략은 유의미(p<.01)한 결과를 보였다. 사후검증 한 바 고졸 또는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집단에 비해 대졸과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에서 통합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통합전략을 유의미(p<.05)하게 많이 사용하였고, 회피전략은 소득이 아주 적

거나 아주 많을 경우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p<.05)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더 창조적이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통합전략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갈등관리 전략과 커뮤니케이션 능력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Jang, 2003b)에서 통합전략은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통합전략을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가장 성숙한 갈등해결 방법이라고 하겠다. 다른 사람의 욕구나 관심을 무시하거나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분할전략은 어머니가 더 많이 사용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들에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 자신의 욕구에 집착하기 때문에 결과가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분할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갈등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회피전략은 아버지가 더 많이 사용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딸 보다 아들에게 더 많이, 소득이 아주 적거나 아주 많을수록 많이 사용하였다.

4)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은 어떠한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의식의 두 영역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영역 모두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의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매우 높은 것(p<.001)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Lee & Shon, 2008)에서도 두 영역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았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Byun, 2006)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아서 성별과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여성이 더 의식수준이 높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필요에 의한 의식의 변화가 여성에게 더 요

Table 6.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Variables	N	M	Duncan	F
Home Life	Gender	Male	158	2.84		-6.264***
		Female	156	3.05		
	Age	30's	24	2.96	a	.642*
		40's	284	2.98	a	
		50's and more	6	2.90	b	
	Number of children	1	47	2.93		.044
		2	222	2.95		
		3	45	2.96		
	Gender of children	Girl	137	3.02	a	9.315***
		Boy	155	2.81	a b	
		Girl and Boy	22	3.01	b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under	66	2.91		.262
		College graduate	52	2.97		
		University graduate	164	2.93		
		Graduate school or over	32	2.97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14	3.01		.238
2~4 million		88	2.98			
4~6 million		135	2.80			
More than 6million		77	2.99			
Social Life	Gender	Male	158	2.44		-4.601***
		Female	156	2.57		
	Age	30's	24	2.53		2.186
		40's	284	2.50		
		50's and more	6	2.49		
	Number of children	1	47	2.53		.169
		2	222	2.49		
		3	45	2.50		
	Gender of children	Girl	137	2.50	a	7.288**
		Boy	155	2.41	b	
Girl and Boy		22	2.61	a		

Variables		N	M	Duncan	F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under	66	2.49		.656
	College graduate	52	2.48		
	University graduate	164	2.5		
	Graduate school or over	32	2.55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14	2.44	b	.965*
	2~4 million	88	2.6	b	
	4~6 million	135	2.51	a b	
	More than 6million	77	2.47	a	

*p<.05, **p<.01, ***p<.001

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이변인에 따라 유의미하게(p<.05) 나뉘어졌는데, 사후검증에서 30, 40대 집단이 50대 이상 집단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권 중심의 가족이미지가 약화되고(Kim et al., 2011) 양성이 평등하길 지향하는 우리사회에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사회생활영역에서는 나이가 의식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주도하는 집단이 나이든 집단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자녀수와 양성평등의식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자녀의 성별과는 깊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딸이 있을 경우가 아들이 있는 경우에 비해 가정 내의 사회화의 문제, 가정 내 남녀의 역할과 행동기준 등의 의식을 가늠하는 가정생활영역에서 유의미(p<.001)하게 의식 수준이 높았으며, 사회생활영역에서도 유의미(p<.01)하게 그 수준이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높은, 앞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양성평등의식과 상관이 없었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은 가정생활영역의 양성평등 의식과는 상관이 없었고, 사회생활영역에서는 유의미(p<.05)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수준이 200~400만원 미만인 집단이 양성평등 의식이 가장 높고 400만원~600만원이 그 다음이며 600만원 이상과 200만원 미만 순서로 의식 수준이 낮았다. 이는 보다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400만원 정도(2013년 4/4 기준, 통계청자료, 2014)임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 평균 소득 수준인 가정에서 맞벌이 등 사회생활 참여 기회의 증가로 인해 사회생활영역에서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개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하면 가정생활, 사회생활 두 영역 모두 어머니가 아버

지에 비해 양성평등의식이 높으며, 가정생활영역에서는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가 아들보다 딸인 경우에 양성평등 의식이 높았고, 사회생활영역에서는 자녀가 딸인 경우에, 또 소득수준이 200만원~400만원일 경우에 의식 수준이 높았다. 자녀의 성별이 여학생인 경우가 남학생인 경우보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두 영역 모두에서 양성평등 의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필요에 의해 여성에 대한 자각이 더욱 요구되었고, 자녀가 성별을 근거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학교에서 교재로 삼고 있는 2009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핵심 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역할을 조사하여, ‘가족’영역의 핵심 내용이 가정 내에서 일상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기법으로 ‘가족’영역의 핵심내용을 알아 보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핵심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역할을 파악해 본 바 그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영역의 핵심 내용은 의사소통, 갈등, 양성평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학교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건강한 가족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부모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의사소통능력, 갈등 관리전략, 양성평등의식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핵심 내용에 대한 학부모 역량의 전반적인 수준은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관계적 능력과 언어적 능력은 평균값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역량이 양호한 편이나, 대인적 능력은 미흡한 수준이다. 갈등관리전략은 자신을 주장하는 분할전략이 낮은 수치인 것과 가장 성숙한 전략인 통합전략 수치가 높은 것은 바람직하게 보이나 상황을 회피하는 회피전략이 평균값 이상인 점은 주목하여야 할 점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의식은 가정생활 영역은 평균값보다 높아 양호하며 사회생활영역은 평균 수준이었다.

셋째, 학부모의 의사소통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관계적 능력은 자녀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역량이 있으며, 대인적 능력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또 학력이 높을수록 역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적 능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역량이 있으며,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일 때, 자녀가 딸일 경우에, 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장 유의미하게 언어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 학부모가 스스로 의사소통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 것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과의 대화가 적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관리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소년 자녀에게는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에서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취약한 것을 감안하여 “남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학부모의 갈등관리전략은 더 창조적이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통합 전략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며, 자신을 주장하는 분할전략은 어머니가 더 많이 사용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아들에게 더 많이 사용하며, 회피전략은 아버지가 더 많이 사용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아들에게, 소득이 아주 적거나 아주 많을수록 많이 사용하였다.

다섯째, 학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두 영역 모두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소득 수준은 양성평등 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생활영역에서 소득 수

준이 200~400만원 미만인 집단이 양성평등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2013년 4/4 기준, 통계청자료, 2014)정도임을 생각 할 때, 우리나라 평균 소득 수준인 가정에서 맞벌이 등 여성의 사회생활 참여 기회의 증가로 인해 특히 사회생활영역에서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개발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자녀의 성별이 여학생인 경우가 남학생인 경우보다 가정생활, 사회생활 두 영역 모두에서 양성평등 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녀가 성별을 근거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양성평등의식에서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자녀가 아들인 경우에 의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남녀 차별 의식이 성행동이나 문화규범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교육의 역점이 남학생에게, 또 아버지에게 더욱 많이 제공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청소년기 자녀와의 소통을 돕기 위한 학부모 교육에서 의사소통방법, 갈등 해결을 위한 통합전략 사용법, 양성평등의식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를 제안한다.

셋째, 교과서 핵심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파악을 넘어, 자녀가 지각하는 학부모의 역량과, 이 영역에 대한 교사의 실생활에서의 역량 파악을 위한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참고문헌

- Ahn, L. W., Park, S. H., & Lee, G. H. (2008). Development of the educational program with gender equality for elementary school parents based on quality research method. *Interdisciplinary Journal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1(3), 83-104.
- Beom, K. S., & Kim, E. J. (2011). The effects of parental conflict management styles on young adults' parent-child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Korean families: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s of filial piety.

-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4), 261-283.
- Byun, J. W. (2007). *MMPI Characteristics i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orea.
- Chae, J. H., Park, M. J., Kim, S. G., & Han, J. (2011). *Introduction to home economics education*. Seoul: Kyomunsa.
- Cho, S. K., & Lea, E. K. (2001). The effects of parent-children's communication patterns by adolescent and consciousness of gender equality on behavior problem.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8(1), 51-66.
- Choi, J. H. (2002). Analysis of family life part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for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4(1), 15-25.
- Choi, Y. I., & Chung, C. G. O. (2011). 7. An analysis of contents and activities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 the middle school. *Secondary Institute of Education*, 23, 129-151.
- Jang, H. S (2003). The effects of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relational outcome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23, 113-151.
- Jun, M. K., & Kim, S. H. (2010). Homes economics teac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147-162.
- Jun, M. K. (2012). A Study of 'Families' as presented during the 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in middle school: Focusing on the 'The changing family' of 2007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2), 29-49.
- Jung, H. Y., & Chae, J. H. (2001). Differences of gender equity education between the home economics and technology teachers in the middle schools-Focusing on awareness of gender equity and degrees of gender equity teach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3(2), 47-57.
- Kim, H. K., Do, M. H., Mun, H. S., Park, C. S., Son, H. S., Oh, J. O., & Hong, D. A. G. (2011). *Social work with families*. Gyeonggi-do: 공동체
- Kim, M. J., & Yoo, T. M. (2004). Content analysis of illustrations in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textbooks of the 7th curriculum by units from the gender equity perspectiv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4), 27-41.
- Kim, S. H., & Yoon, Y. (2011). A Content Analysis on multicultural education for economics area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 of the high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1), 73-86.
- Kim, S. Y. (2010). The relationship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ypes and sexual consciousness by adolesc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28, 63-82.
- Kim, Y.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high school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Park, M. S., & Shin, H. S. (2006). Requirement and perception of parents on the subject of 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3), 1-22.
- Um, I. S. (2012).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ren communication and self resilienc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2(2), 51-70.
-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http://ncic.go.kr/>
- 통계청 STATISTICS KOREA (www.kostat.go.kr)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중학교에서 교재로 삼고 있는 2009 개정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핵심 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역량을 파악해 보는데 있다.

그 연구결과는 첫째,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족'영역의 핵심 내용은 의사소통, 갈등, 양성평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부모의 의사소통 역량은, 교육수준이 가장 유의미하게 상관이 높았다. 의사소통 능력 중 관계적 능력은 자녀가 많을수록 역량이 있으며, 대인적 능력이나 언어적 능력에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역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딸일 경우에, 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았다. 셋째, 학부모의 갈등관리 전략에서 통합전략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분할전략과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분할전략은 어머니가 더 많이 사용하고, 회피전략은 아버지가 더 많이 사용하며 각자 아들에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은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의식수준이 높았으며 자녀가 아들보다 딸을 가진 경우에 부모의 양성평등 의식이 높았다. 따라서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교육이 남학생에게, 또 아버지에게 더욱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 교육에서 의사소통방법, 갈등 해결을 위한 통합전략 사용법, 양성평등 의식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04월 30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6월 29일